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4팀

1주차	일시	11 월 11일 14 : 00 상상관 지하 B2 108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현태(1991082)	O
		곽민정(2431195)	O
		곽지희(2431182)	O
			O / X
	진도	도서명: 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	진도페이지: 1 p. ~ 206 p.
	<div data-bbox="526 533 1455 123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00 1205 1086 1238" data-label="Caption"> <p>활동 사진 추가</p> </div> <div data-bbox="716 1258 1270 1292" data-label="Caption"> <p>[좌측부터 박현태, 곽지희, 우가영, 곽민정 ...]</p> </div>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박현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이번에 두번째라서 익숙하지 않지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추리소설에서의 초반부의 흡입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추리 자체의 베이스가 강하기 보단 고다이 형사의 행위에 무게가 맞춰진 느낌을 조금은 받았다.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p> <p>곽민정: 우선 독서 시작 전 가공범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공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범이 아닌사람' 을 의미한다는걸 알게돼서 우선 범인이 한명이 아닌 다수일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책의 중반부쯤에 야마모 요스케 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게되는데 이 인물의 의심가는 정황들이 종종 나와서 가공범은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봤다.</p> <p>곽지희: 조사를 해보면 계획된자살 동반 자살이라고 가장한 타살이지만 무계획적인 면도 있어서 가공범이라는 제목에 좀 알맞은것 같다. 범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p>		
	토론 내용		

2주차	일시	11월 18일 14 : 00 상상관 지하2층 IB 103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곽민정(2431195)	O
		곽지희(2431182)	O
		박현태(1991082)	O
		우가영(2191239)	X
	진도	도서명: 가공범	진도페이지: 206p. ~ 527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6 575 1457 1133"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박현태, 곽민정(아래쪽), 곽지희]</p> <p>토론내용 작성</p> <p><질문1> 이 소설의 시점 전개(정보 배치)는 몰입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만약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서술되었다면 더 좋았을까요?</p> <p><질문2> 결말은 만족스러웠나요? 열린결말VS명확한 결말 중 어떤 방식이 더 어울렸을까요?</p> <p>곽민정 <질문1>:이 소설의 시점은 고다이 쓰토무의 시점으로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3인칭 시점에서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며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있다. 이 배치를 통해 고다이만의 시점이 아닌 다른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는 쉬웠지만 몰입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아예 고다이 쓰토무의 시점으로만 상황을 전개해서 하나하나 추리해나가며 상황이 들어맞는 전개가 더 몰입감 있고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서 재밌었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인 미사키의 시점과 가공범인 야마오의 시점에서 서술했어도 재밌었을것 같다.</p> <p><질문2>:사실 기대했던것만큼 만족스러운 결말은 아니였다. 내용상 전개에서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살인 동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은거같아서 '저런이유로 죽인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초반에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그중에서 추리하는 방식이 아닌 내용 전개 와중에 한명씩 계속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인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좀 내용이 산만해지는걸 느꼈다. 결말 자체도 생각보다 엄청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였다. 작품 중후반까지만 읽어도 가공범이 누구인지의 정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유추 하기가 너무 쉬웠고 허를 찌르는 내용의 결말은 아니였다고 본다.</p> <p>이 작품은 명확한 결말의 방식이 더 어울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에서 열린결말로 끝나게 된다면 정말 내용 자체가 아예 모호해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될거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작가라면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할지에 따라서 솔직히 아무렇게나 사유를 가져다가 붙여도 다 범인 동기를 만들 수 있을것 같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열린결말로 하게된다면 예상되는 가해자가 너무 많아서 예상하기가 엄청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명확한 결말이 나는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p>	

2주차		
	토론 내용	<p>토론내용 작성</p> <p><질문1> 이 소설의 시점 전개(정보 배치)는 몰입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만약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서술되었다면 더 좋았을까요?</p> <p><질문2> 결말은 만족스러웠나요? 열린결말VS명확한 결말 중 어떤 방식이 더 어울렸을까요?</p> <p>곽지희</p> <p><질문1>:이 전에 봤었던 히가시고게이고 소설은 명탐정 코난처럼, 하나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해결하는 시점이었는데, 이 소설은 애초에 형사 시점을 중심으로 이미 살인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추종하고 한명한명 면담하는 이야기가 다이기 때문에 누가 범일일지 추리하는 재미가 없었다. 즉 읽으면 읽을 수록 새로운 등장인물이 계속 나와서 등장인물끼리 관계도 연결 짓기도 힘들며, 추리소설은 범인이 누구지 추리하며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재미요소가 없어서 아쉬웠다.</p> <p><질문2>:추리소설은 명확한 결말을 보기 위해 지겨운 부분까지 기다리고 보는건데, 자살에 대한 동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으며 추리소설은 정해진 범인과 답이 있는 소설인 만큼 열린결말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한다.</p> <p>박현태</p> <p><질문1>:『가공범』은 탐문수사-정보 획득-경찰의 급한 연락-다시 탐문이라는 전형적인 수사 패턴을 반복하면서 사건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반에는 이 구조가 리듬감을 형성하며 몰입을 돕지만, 중반 이후에는 지나치게 형식화된 반복으로 인해 서사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30~40년 전의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이 긴밀하게 얹혀 있음에도 그 연결고리를 밝히는 과정도 거의 전부 탐문 방식에 의존해 전개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 방식이 단조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생긴다. 반면 동료 경찰의 돌연한 자백 장면처럼 긴장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장치들은 여전히 유효해 소설이 쉽게 늘어지지 않도록 버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 부인과 딸·손녀의 감정 구조를 특정 시점에서 교차 서술하거나, 다른 인물의 내면 시점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작품의 감정적 밀도와 심리적 설득력은 훨씬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p> <p><질문2>:결말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작품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다. 아마오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도도 부인의 비밀이 무엇인지, 과거 사건이 어떤 형태로 현재와 만나게 될지 등 주요 수수께끼들은 서사 중반만 지나도 대략적 윤곽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기존 수사물에서 익숙하게 봐온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도도 부인의 캐릭터가 설득력을 잃는 순간 그녀의 딸과 손녀가 느낄 감정적 파장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 결말의 감정적 깊이가 충분히 쌓이지 않는다. 입양되지 못한 딸의 상처나 손녀의 혼란을 극적으로 활용했다라면 후반부 갈등이 훨씬 풍부해졌을 것이고, 도도 부인이라는 인물도 더 입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말 자체는 열린 결말이든 명확한 결말이든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그 결말에 도달하기까지의 감정적 축적이 부족했던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p>

3주차	일시	11월 25일 14 : 00 상상관 지하2층 IB 103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곽민정(2431195)	O
		곽지희(2431182)	O
		박현태(1991082)	O
		우가영(2191239)	X
	진도	도서명: 가공범	진도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토론 내용	<div data-bbox="526 575 1457 1133"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박현태, 곽민정, 곽지희]</p> <p>토론내용 작성</p> <p><질문1>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나요?</p> <p><질문2> 죄는 행동(결과)로만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기까지 고려해야 하나요?</p> <p>곽민정</p> <p><질문1>: 작중에서 에리코는 엄청예쁜 사람으로 등장한다. 아마오는 본인의 친구가 에리코와 사귀는걸보고 한편으로는 부럽다 라는 식의 감정을 품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도 야스유키와 에리코가 만나고 있는 상황을 친구에게 말할것이라고 에리코의 약점을 잡은 후 친구와의 의리 이런건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p> <p>나는 아무리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어도 살인은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나는 이게 그정도로 죽일일인가 별로 공감이 잘 되진 않았다. 그래서 범죄적 측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에서 미사키는 본인의 죄의 무거움을 잘 못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마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은폐해준 것이기 때문에 더욱 둘의 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p> <p>본인 딸인 미사키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미끼로 내세워 수사에 혼란을 겪게 하는부분에서는 아버지로써의 책임감을 느낄수는 있었지만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p> <p><질문2>: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처벌이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동기까지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할 만 하지만,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경우에는 동기가 어찌됐든간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정당방위의 경우에만 감형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p> <p>동기를 너무 지나치게 고려하다보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p>	

3주차		
	토론 내용	<p>곽지희</p> <p><질문1> 짝사랑에 대한 마음이 허위자백을 하게 만든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증거 없는 자백을 해서 사건을 미지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도도 부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행동이라 생각이 든다.</p> <p><질문2> 동기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증거재판 주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법령도 있다. 형사는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해야한다. 예컨데 드라마에서 부모한테 학대를 받은 아이가 부모를 죽였는데 살인죄를 면화할 수 있지는 않다. 동기는 판결의 형량을 줄일수 있는 뿐이고 어찌되었든 살인이라는 죄목은 지워지지 않기에 동기는 필요없다</p> <p>박현태</p> <p><질문1>:『가공범』에서 사건의 중심에는 형사 고다이의 추적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사건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은 도도 부부와 야마오, 그리고 과거 사건의 생존자들이다. 이들이 내리는 극단적 선택은 단순한 악의나 범죄성이 아니라, 오래된 비밀과 죄책감, 특정 인물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감정이 축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야마오가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결말의 흐름을 상당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강한 감정적 동기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 감정적 동기는 독자에게 일정 정도의 이해를 낳을 뿐, 법적·윤리적으로 그들의 선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아쉬운 점은 도도 부인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이 설득력을 충분히 갖지 못해, 인물들의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캐릭터는 흥미롭지만, 사건의 중심축이 되는 그녀의 행적이 비현실적이어서 주인공들의 선택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p> <p><질문2>:소설 속 범죄들은 결과만 놓고 보면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이지만, 각 인물의 동기를 살펴보면 또 다른 층위의 감정이 존재한다. 도도 부부의 왜곡된 보호 본능, 야마오의 충성심에 가까운 집착,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품은 딸과 손녀의 정서는 모두 사건의 배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동기가 충분히 서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 제시된다는 점이다. 도도 부인의 과거는 사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개연성이 부족하며, 그녀의 딸과 손녀의 감정 역시 깊게 묘사되지 않아 동기의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인물들이 저지르는 행동을 용서할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 동기를 반영한 참작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작품 속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다.</p>

4주차	일시	12 월 2일 13 : 00 장소명 연구관 813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곽민정(2431195)	O
		곽지희(2431182)	O
		박현태(1991082)	O
		우가영(2191239)	X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가공범	진도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토론 내용	<div data-bbox="526 607 1457 1296"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박현태 곽지희 곽민정 ...]</p> <p>※ 토론내용 작성</p> <p>교수님께서 첫주차에 많은 매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달동안 생각해보고 마지막주에 토론해보기로 했다.</p> <p>박현태 : 많은 미디어믹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는 상상력 때문이다 인간의 상상력이 존재 하는 이상 미디어 매체의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글이라는 분야는 결국 단어라는 한계 안에서 상상해야하기 때문에 밀키트같은 미디어 믹스와는 다른 본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p> <p>곽지희 : 영상 매체는 긴장감을 강요하지만, 추리소설은 독자의 상상 속에서 긴장감이 생성된다. 문장 하나가 던지는 뉘앙스 묘사가 생략된 부분을 독자가 스스로 보완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라는 불안과 기대 이 내면적 긴장 구조는 영상으로 대체할 수 없다</p> <p>곽민정 : 능동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함. 영상은 인물의 표정,목소리,장면,음향 등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지만 책은 묘사가되어있긴하지만 본인이 직접 상상하고 해석할수있는 재미요소가 있음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고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해나가는 과정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p>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곽민정(2431195)	『가공범』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소설이 단순히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끌어내려는 듯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혼자 읽을 때는 지나쳤을 장면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인물들의 선택과 감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 특히 누군가 스스로를 범인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 순간이 기억난다. 나는 죄책감의 뒤뜰린 형태라고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압박, 책임 회피, 심리적 붕괴 등으로 해석했다. 같은 문장을 놓고 서로 다르게 느끼는 지점을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2	곽지희(2431182)	나는 『가공범』을 통해 한 편의 추리소설이 얼마나 정교한 퍼즐처럼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실감했다. 이야기의 흐름, 단서 배치, 감정선의 변화가 서로 맞물리며 독자를 오해하게 만들고 다시 깨닫게 만드는 장치들이 너무 견고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내가 놓쳤던 복선이나 서술의 의미를 계속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장면은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읽었고, 또 누군가는 논리적인 장치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이 작품을 훨씬 입체적으로 보게 해줬다. 마지막 진실에 대한 의견이 가장 흥미로웠다. 나는 결말을 ‘작가가 던지는 철학적 질문’으로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이 짊어진 고통을 드러내는 냉정한 현실주의로 해석했다. 서로 다른 시각이 모이니 한 작품이 이렇게 다양한 층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3	박현태(1991082)	『가공범』을 읽으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범죄 그 자체보다 ‘누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다 는 것이다. 이 소설은 단서보다 사람의 말과 침묵을 의심하게 만드는 작품 이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물들의 고백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인물들이 스스로를 속이거나, 혹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는 장면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때마다 작품을 다시 읽는 기분이었다. “진실”이란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는 점을 깊이 느꼈다. 이 책을 통해 범죄의 원인보다 ‘인간이 어떤 심리로 그렇게까지 밀려가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읽는 내내 편치 않은 감정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이 작품의 가장 큰 힘이었다.
	4	성명 (학번)	
	5	성명 (학번)	

2025학년도 2학기 독서클럽(28기) 테마도서 서평

작성자		도서명	
학번		저자명	

서평 내용 (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 **1,000자 이상** 작성)

■ 도서 선정 이유 (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

*100자 내외

■ 주요 내용 요약

*300~400자

■ 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

*400~500자

■ 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

*100자 내외

[서평 첨삭 방법] ※무조건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여 '사고와 표현 과정'에 제출

서평 작성 ▶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사고와 표현 과정' 상담 프로그램 신청 ▶ 첨삭내용 토대로 내용 수정

[서평 제출 방법] ※자유 형식 파일 첨부 가능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상상독서 홈페이지 ▶ 글쓰기(파란색 아이콘) ▶ 도서 검색 ▶ 1.해당 양식으로 작성한 첨삭 전 서평 / 2.'사고와 표현 과정'에서 피드백 받은 첨삭 내용 / 3.첨삭 내용 반영한 최종 서평 **총 3가지** 입력 후 발행